

안 그래픽스 인쇄 · 사진 ·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ahngraphix@gmail.com	구나영 보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새로이 65세 되시는 분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 구나영 아가다 678-665-4228	리 장례식장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	PIWC Group Agency 자동차, 집, 사업체, 중업원 상해 보험 장인옥 베드로 404-644-8658	SB 건축&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	오즈 냉 동 에어컨, 히팅,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AAA Insurance 이창호 보험(바오로) 자동차/주택/메디케어 678-910-0884 2628 Pleasant Hill Road #700 Duluth, GA 30096	Suwanee 스와니 678-482-9434 (주말 예약가능) 교정/소아 치과	DUO Tucker 770-939-1280 전문의 김범수 니콜라오 김보근 알폰소	Brighter Smiles 광상범 이수산나 잔스크릭 치과 www.brsmilesdmd.com 470-719-0213 7775 McGinnis Ferry Rd Ste 202, Johns Creek, GA 30024		
ALFONE LIFE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SMILE 1 DENTAL GROUP 스마일원치과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203, Suwanee, GA 30024	김세희 소화테레사 김상윤 요셉 678-835-9550	미소 치과 남상우 시몬 남수진 세실리아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Duluth, GA 30096		
JOYNUS CARE 간병인 수시 모집 김경숙 소화테레사 404-457-6703 3120 Crossing Park NW, Norcross, GA 30071 / info@joynuscare.com	RIVERBEND 리버밴드 오토 Tire & Auto Service, Inc. SONAMOO 변대건 안드레아 소나무 Auto Repair 404-663-7984 Office 770-623-5940 3322 Peachtree Industrial Blvd, Duluth, GA 30096	FARMERS INSURANCE 로렌 배 보험 (모니카) 자동차/집/사업체/건강 470-282-1654 3775 Venture Dr. #M202 Duluth, GA 30096	배용자 루시아 보험금융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펀드 678-665-5400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		
Peachtree Physical Therapy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Suwanee, GA 30024 정토니 안토니오	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더조은 척추 박찬규 레오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명품중식 레스토랑 만 천 흥 신자분 5인이상 10% 할인 우대 770-454-5640 매주 월, 화요일은 쉽니다.			
Better Homes and Gardens REAL ESTATE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kw KELLERWILLIAMS. 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 Juliana OH 678-908-4945				
SINCE 1999 VINEYARD REALTY ·시니어 주택전문 (Seniors Real Estate Specialist) ·사업용 건물 ·토지 부동산 전문인 조셉 김 678-361-6230 켈리 김 770-634-5646	Pinehill Realty 조앤리 아네스 부동산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				
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770-495-9994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	오약국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10820 Abbotts Bridge Rd. #240 Johns Creek, GA 30097 오민환 파비아노	죽은이랑 함께 항상기뻐하십시요 거듭말하십시요 기뻐하십시요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사람에게 보이십시요 렘 4:4 주보 광고 문의 kmccga.jubo@gmail.com			
이종원 미카엘 변호사 무료상담 678-622-8829 jwlee@jwleelaw.com 3483 Satellite Blvd #211S, Duluth (파리바게뜨 맞은편)	Fairway Home Loan *주택용자 *상업용자 최윤석 용자 404-578-1426 3483 Satellite Blvd Ste 201S, Duluth, GA 30096				
GIFTS GOLD · CROSS · REPAIRS ·십자가, 성상 ·성화, 목주, 책 ·신발수선 ·금, 은, 주문제작 ·타-셔츠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TOP 조정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남기원 요한 404-966-1919 2547 Old Rockbridge Road, Norcross, GA 30071				

순교자 주보



에블렌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2023년 12월 3일

NO.2228

SCAN ME



주임신부 구동욱 미카엘 micku@kakao.com | 보좌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Email: josephnam2011@gmail.com Tel: 770.827.9987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대림초, 대림 1주>

대림 제 1주일				미사 시간 안내
성 가	입당: 89	봉헌: 215/211	성체: 170/178	파견: 93
제1독서	이사야서 63, 16.17.19;64,2-7 아, 주님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화답송	 하느님, 저희를 - 다시 일으켜주 - 소 - 서. 당신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 원되리 다.			
제2독서	코린토 1서 1,3-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음	마태오 13,33-37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주일미사 청년미사(토) 5:30pm 아침미사 8:30am 교중미사 10:30am 영어미사 12:15pm 평일미사 화요일, 금요일 12:00pm 수요일, 목요일 7:30pm 월간미사 성모신심미사 첫째주 토요일 12:00pm
				◆ 고해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성시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사무실: 일요일 7:00am-3:00pm 월요일 휴무 화-토 10:00am-6:00pm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마르코 13,33-37)

벌써

배영길 베드로 신부

벌써 대림이야,
참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마음이 따라가지 못한다.
삶이 따라지지 못한다.

또 벌써 성탄이야,
말하지 않게,
하나하나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오늘은 초 하나
올리는 것부터.



대림 시기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때입니다. 대림 시기의 정점은 예수님의 탄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서들이 전하는 것처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옛 계약과 새 계약의 분기점이 되고 예수님께서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림 시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분의 구원 업적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따라서 대림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오신 것을 통하여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영광 속에 다시 오시는 날은 종말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맞닿아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에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깨어 기도하여라.”(루카 21,36)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한 해의 시작에 듣게 되는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해마다 그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움을 없애는 기쁨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그분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대림 시기의 의미입니다.

(허규 베네딕토 신부)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창조론 = 무로부터의 창조

창조설화는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의 기록이고,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의 이유와 목적, 즉 창조주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세상을 마련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시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창조 사건의 중심과 결정적 사건이 인간 창조라 증언합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 그런데, 하느님은 왜 하필(?)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아담’(Adam)의 뜻은 흙, 먼지... 즉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사순시기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에 사제는 신자들 머리 위에 재를 얹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창세 3,19 참조) 하느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의 먼지로 빚은 인간 모양에 당 신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흙(아무것도 아닌) + 하느님의 숨(영, 정신, 이성)이 함께하는 존 재’입니다. ‘숨’ 내지 ‘영’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느님을 닮은 점이고, 하느님과 소통 가능한 능력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숨을 주셨고, 언젠가 그 숨을 거두 십니다. 하느님을 통해 인간은 영적 존재가 되었고, 하느님은 완전한 영, 즉 성령이십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영을 지닌 존재이기에, 모두 존엄하고 평등하며, 그 자체로 존 중받아야 한다고 그리스도교는 가르칩니다. ‘아담’은 흙을 의미하고, ‘하와’(Hawwāh, 영어로는 ‘이브’ Eve)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할 때, 흙과 생명이 함께할 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창세기의 가르침입니다. 온 세상과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중 어느 것이 합당한지 많은 이들이 묻고, 답합니다. 창조론은 창세기 내용처럼 온 우주와 인간이 창조주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주장이자 믿음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창세기 설명에 따라 세상이 창조, 발전되었다고 글자 그대로 믿기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반면 진화론은 세상 첫 시작이 우연히 발생했고, 이후 우주와 생명은 자연적으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진화론은 창조 과정은 물론 창조주의

존재도 부인하는 과학중심적이고 무신론적 사상입니다. 그런데, 과학이란 ‘원인과 결과’, 즉 인과율의 법칙이 중요한 학문인데, 진화론은 최초의 시작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비과학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설명은 세상의 질서와 이치를 인간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이성이 하느님을 온전히 담을 수 없습니다. 바닷물을 과학이라는 그릇으로 뜨면 그릇에 담긴 물은 바닷물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바다는 아닙니다. 물론 진화론을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도 옳지 않고, 진화론에 주목할만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창조주에 의한 세상 창조를 전제하지 않는 진화론은 그리스도교 가르침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진화론을 거부하며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창조론과 진화론을 적절하게 융합한 ‘창조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역시 아직 완성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조론의 핵심은 하느님에 의한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이고, 이것이 구약과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고, ‘언제나 더 크신 하느님’(Deus semper major)이십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신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감사히 받기만 하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출처 글: 서울 주보 / 그림: 바오로딸 콘텐츠>



베드로 형제님 커피 봉사

매주 주일 신자분들을 위해 커피를 준비해주시는 안성범 베드로 형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주기도봉헌



망치회 김밥 판매



성당 외부 야외 구유 설치

야외 구유설치가 있었습니다. 구유 설치를 위해 봉사해주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장식 & 대성전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크리스마스 장식을 도네이션해주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던우디 구역 점심 봉사

지난 주일 주보에 <존스크릭 구역 점심 봉사>로 잘못 표기되어 정정합니다. 11월 19일 주일 점심 봉사는 <던우디 구역>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봉사해주신 구역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림 시기

대림 시기는 '주님 성탄 대축일' 전의 4주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기이다. '대림' (待臨)이라는 말은 '도착'을 뜻하는 라틴 말 '앗벤투스'(Adventus)에서 온 것이다. 이 대림 시기의 첫 주일부터 한 해의 전례주년이 새롭게 시작된다. 곧 교회 달력 (전례력)으로는 대림 제1주일이 새해의 첫날이다.

대림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스페인과 갈리아 지역에서 성탄을 앞두고 참회의 기간을 가진 관습이 있었던 4세기 말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에서 해마다 대림 시기가 거행된 것은 6세기 이후 로마 전례에 도입되면서부터이다.

대림 시기는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로 준비하는 기간이다.

◆대림 제1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전례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다리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따라서 성경 말씀도 '깨어 기다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12월 17일부터 성탄 전야인 12월 24일까지의 전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림 시기에는 제대 주위의 화려한 장식을 피하고, '대 영광송'을 바치지 않는다. 그러나 '알렐루야'를 노래하는 것은, 회개와 속죄의 시기이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대림초 네 개를 마련하여 매주 하나씩 늘려 밝히는데, 이는 구세주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알려 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시기의 전례 때 사제는 회개와 속죄의 뜻을 상징하는 보라색 제의를 입는다.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

"깨어있음(vigilanza)과 기도는

대림시기를 위한 두 가지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베들레헴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마지막 날과 아울러 우리 각자의 삶의

마지막으로도 오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매일, 매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영감을 통해 오십니다."

<2018년 12월 3일 산타마르타의 집 아침 미사>



<바로로팔 콘텐츠>

